

ISSUE
BRIEFING



기후·생태·환경정책의 주류화,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

연구책임

연 구 진

김보국 수석연구위원

천정윤 책임연구위원

장남정 선임연구위원

조하진 연구원

요약

- 국제사회는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면서 효과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부도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립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의 연계와 통합, 지역사회 참여를 국정과제(39·40번)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 주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자연환경보전, 생태자산 활용, 환경교육의 전 부문에 걸쳐 시민사회 참여와 인식증진, 주류화를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전북형의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 경기도와 경남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상남도환경재단」 설립을 통해 기존의 개별적으로 운영된 환경관련 민간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환경현안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간분야의 인식증진과 참여, 교육훈련, 환경산업 육성 사업화 지원,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전북은 1980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 센터」,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시민사회 참여를 증진해 왔다. 그러나 개별적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에 한계가 있고, 지역주도 환경정책의 실천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새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전북 특화형 환경정책 추진에 부응하여 민간부문의 환경분야 실천과제를 전담할 수 있는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출범이 필요한 실정이다.
- 새정부 출범과 전북자치도의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주민 참여 환경정책을 주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 추진 절차는 기관별 재정지원 형태, 소재지, 관리부서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을 제안한다. 주요 업무는 기후에너지전환 실천사업, 통합 시민참여 환경교육, 시민생태조사 및 정보화, 생태관광과 생태경제 증진, 전북특화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서비스 확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재원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로 확대될 예정인 국가 기후대응기금과 전북자치도 조례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을 지역특화 민간참여 기후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Keywords Carbon Neutrality, Mainstreaming, Citizen Participation,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Education

1

제안배경과 필요성

○ UNFCCC, CBD 등 국제사회는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

-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Goal17에서 정부·민간·시민사회 간 협력 제시
- (UNFCCC)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상호 영향성 증대와 가속화를 고려하여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CBD) GBF 실천목표 8(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 최소화), 14(생물다양성 가치의 주류화), 21(인식·교육·연구 및 정보접근) 제시

○ 신정부도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립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연계와 통합, 지역사회 참여를 국정과제로 제시함

- 지역상생 에너지 대전환(국정과제 39), 탄소중립 실현 국민참여 확대(국정과제 40)
-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목표17 지구촌 협력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를 세부목표로 제시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 생태자산의 활용, 자원순환, 환경 교육 등 부문별로 시민사회 참여와 인식증진, 주류화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사업의 효과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김호석 외(2018)는 개별사업 중심의 환경지출 구조는 정책간 조율을 어렵게 하고 자원의 중복투자 또는 누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함

○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전환하고, 전북형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대응, 에너지 전환, 환경교육의 통합적 추진을 지원하는 민간참여 플랫폼 구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전북의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으로 지역의 환경정책의 주류화와 민간참여를 주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 조직 설립을 제안하고자 함

2

지역 특화형 환경정책 플랫폼 구축사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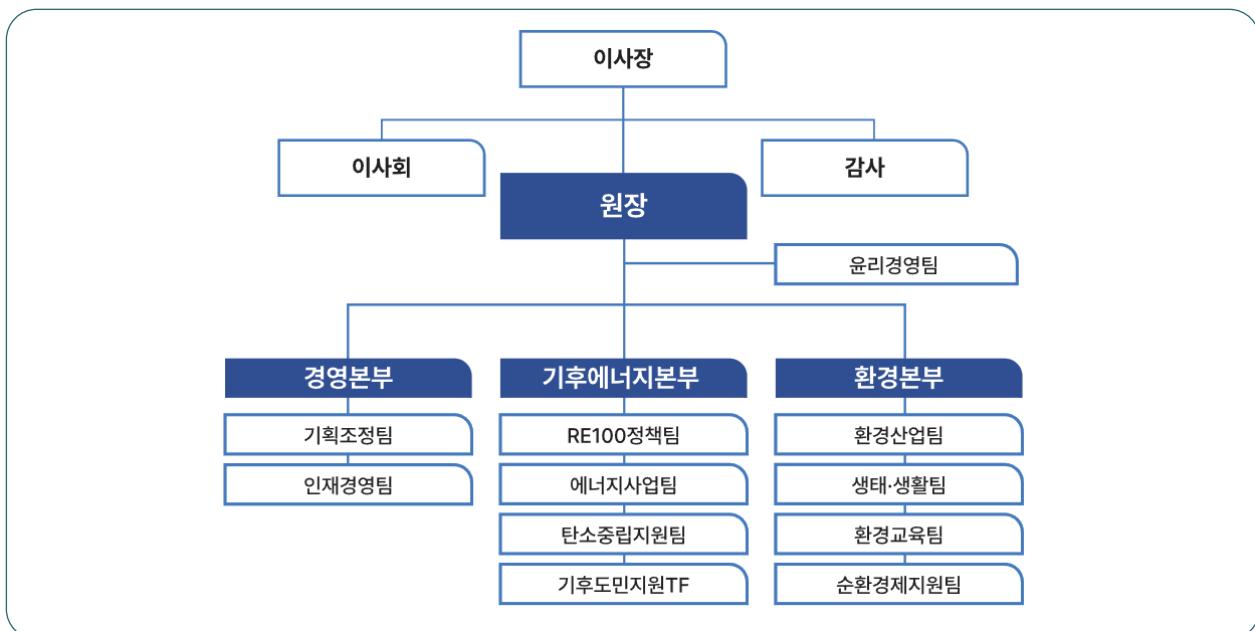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경기도 조례 제8254호), 재단법인
 - 설립목적: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환경사업의 공공성·전문성 강화와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 질 제고
 - 추진사업: ①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사업 발굴·기획 및 지원, ②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③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④ 환경·물·에너지산업 육성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 ⑤ 업사이클플라자 사업 상담 및 문화 확산.

생물다양성 탐사, 습지보전 등 녹지생태 지원사업, ⑦
도민 환경보전 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분야 교육·홍보,
⑧ 환경개선과 도민의 환경·에너지 서비스 질 향상
위탁사업 등

- 조직 및 재원

- 조례에 따라 '20년 8월 설립, 에너지·환경분야 6개 기관(환경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기후변화교육센터, 에너지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통합함
 - 3본부 11개 팀 96명의 인력으로 운영, 2025년 예산규모는 약 746억 원

〈그림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조직 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geea.or.kr/theme/ggeea/html/sub_1_3.php)

» 경상남도환경재단

- 설립근거: 경상남도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경상 남도 조례 제5626호)
- 설립목적: 2008 람사르총회 성공적 개최와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지속가능 환경가치 증대 환경정책 연구,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등 사업 추진
- 추진사업: ①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 ② 생태관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도내 환경 관련 단체 등의 지원, ③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및 환경 관련 행사 개최, ④ 환경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⑤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모델 개발·확산에 관한 사항, ⑥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⑦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대행 사업, ⑧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조직 및 재원

- 2008년 6월 설립되었으며, 2024년 7월 환경영정 효율성 제고 및 환경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람사르환경재단의 기존 습지 중심에서 환경분야 정책 전반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환경 분야 유사 기능을 가진 3개 기관(환경교육원, 람사르환경재단, 탄소중립지원센터)을 환경재단으로 통합함
- 조직은 2부 6팀 1센터로 총 3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예산규모는 약 31억 원임

〈그림 2〉 경상남도환경재단 조직 구성



경상남도환경재단 홈페이지(<http://www.gnen.or.kr/page.do?menuNo=1010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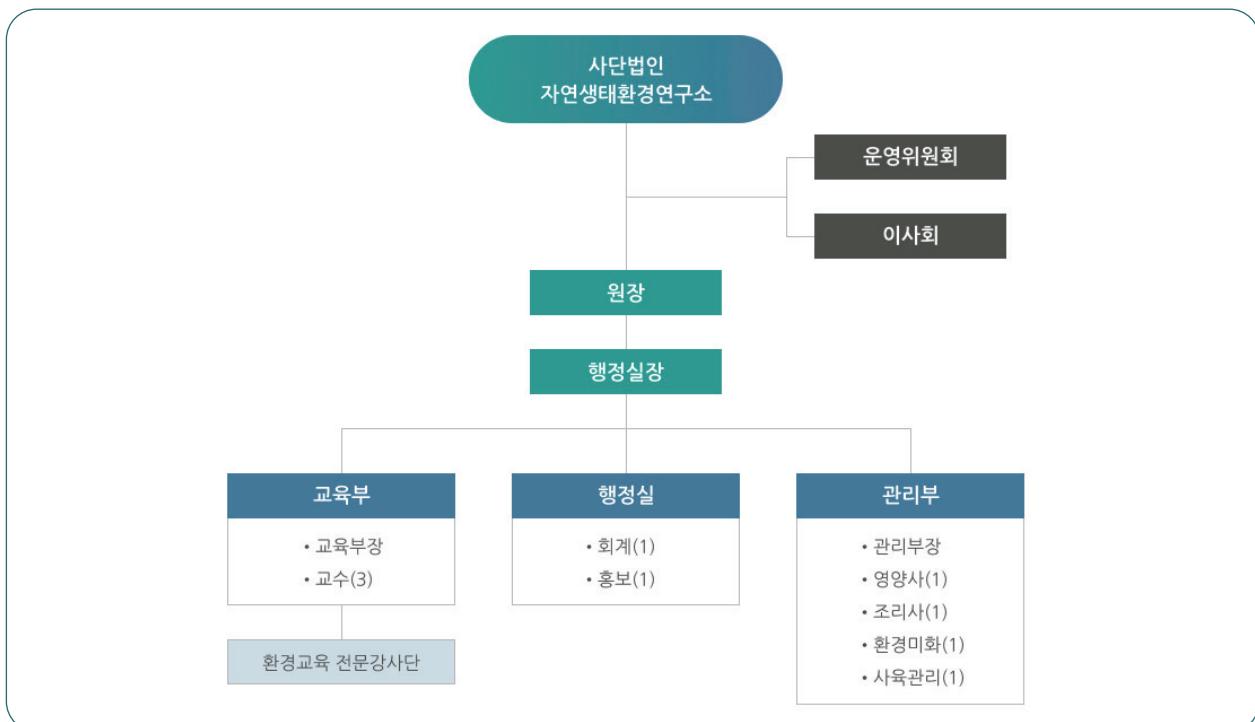
전북자치도 환경분야 중간지원조직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 (개요) '80년 12월 내무부 자연학습원 조정지침에 따라 '86년 개원, 초기 도가 직영하다가 '02년 민간위탁으로 변경. '07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4589호(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운영. 연수동, 숙박동 2동, 교육시설 6동으로 구성, 숙박형 환경교육기관임
- (운영방법) 민간위탁으로 운영(현8기, (사)자연생태 환경연구소, 23.1~25.12). 비상근 전문 강사를 제외하고 총 13명으로 운영됨

- (예산규모) '25년 예산은 총 739백만원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439백만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12개) 300백만원이 소요됨
- (주요사업)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직접교육으로 찾아가는 학교·사회환경교육진행, 14개 시·군 양성을 목적으로 전북시민과학자 양성하고 주민참여 생물다양성 조사 진행.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무주군 생태환경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무주군 기관협력사업)을 추진
-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6개의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그림 3〉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조직 구성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홈페이지(<http://jayeon.or.kr/>)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개요) 유엔환경회의 권고로 지방정부가 설치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이행기구이자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임. '00년 7월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로
창립, '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도 업무
이관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협의회 관리
 - (운영방법)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공모를 통해 지원,
사무처 7명으로 운영됨

- (예산규모) '25년 예산 총 1,124백만원, 경상보조 1,004백만원(민관협력사업 304백만원,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700백만원), 공모사업 120백만원(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사업 100백만원,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20백만원) 소요

- (주요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및 시범지표 모니터링,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통한 카페, 축제, 장례식장, 다중 이용시설 등 다회용기 사용 지원, 도민 및 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4〉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 구성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http://www.jbcas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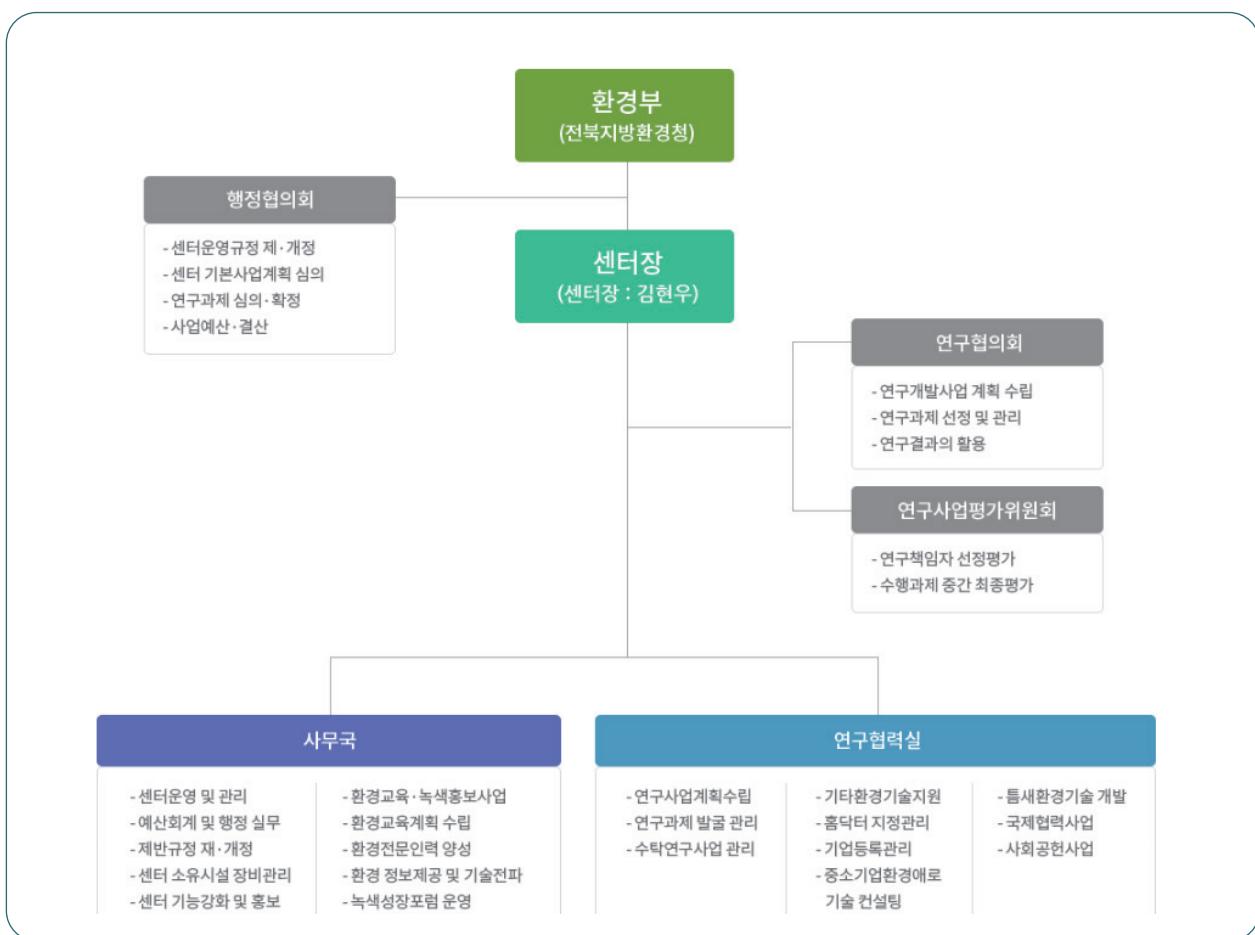
기후·생태·환경정책의 주류화,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개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라 '01년 지역특화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정보 수집·보급을 위한 지역거점체제 구축, 지역환경기준 설정과 환경정책연구, 기업 환경기술 지원,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정보 전파·보급·촉진 극대화를 위해 산·학·연·관·민 컨소시엄 구성
- (예산규모) '25년 예산은 950백만원(국비 317백만원, 도비 200백만원, 시·군비 160백만원, 기타 273백만원)이 투입됨

- (운영방법)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운영,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함. 조직은 사무국과 연구협력실로 총 7명으로 운영됨
- (주요사업) 지역환경 현안문제 해결 기초조사·연구사업, 기업의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지역 내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기업환경지원팀 구성, 지역환경 자료 공유, 지역협력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운영·지역 네트워크 구축, 환경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산업체 인력 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5〉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조직 및 업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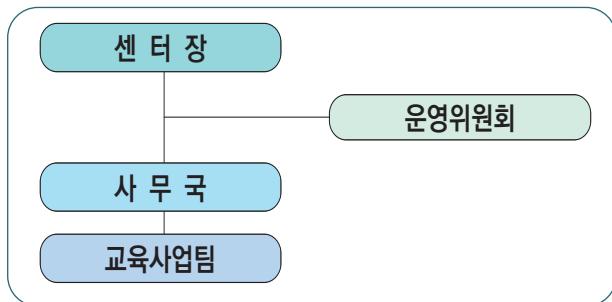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bgec.or.kr>)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 (개요) 지역 환경교육기반 구축, 국가 및 지역환경교육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환경교육 거점기관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가 지정한 광역환경교육센터로, 전북은 '20년 지정됨
 - (운영방법) 현재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센터장(비상근, 겸임)을 제외한 상근 3명(사무국장, 교육사업팀장, 팀원)으로 운영됨
 - (예산규모) '25년 예산 총 168백만원으로 사업비로는 환경교육기반구축 사업 7백만원, 사회환경교육 지원 사업 7백만원, 환경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9백만원임
- ※(참고)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국비와 도비를 50:50으로 매칭, 총 3억원으로 운영해야 함. '23년은 총 3억원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나, '24년 국비가 전액砍감되면서 '24~'25년엔 순 도비로 운영함
- (주요사업) 전북자치도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확대, 환경교육단체 역량강화 지원, 환경교육 교구대여 서비스, 시군 지역기반 환경교육 강사양성, 도내 환경 교육 강사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제공, 환경교육 강사 네트워킹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정보 플랫폼 운영 및 환경교육 관련정보 제공, 환경교육 관련 단체·기관 및 학교 등 자문 및 협력사업 운영

〈그림 6〉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조직도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 (개요) 전북은 지역 주도의 생태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생태관광 사업 추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2016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
- (주요사업) ①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②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③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④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⑤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⑥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⑦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⑧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⑨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예산규모) 도비로 '25년 기준 650백만원(균특 325, 전북 325)임
- (운영방법)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 위탁 운영, 1실 2팀 5명으로 구성됨

〈그림 7〉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주요 기능



전라북도 생태관광 천리길·자질공원 홈페이지(<http://m.jb-ecotour.org/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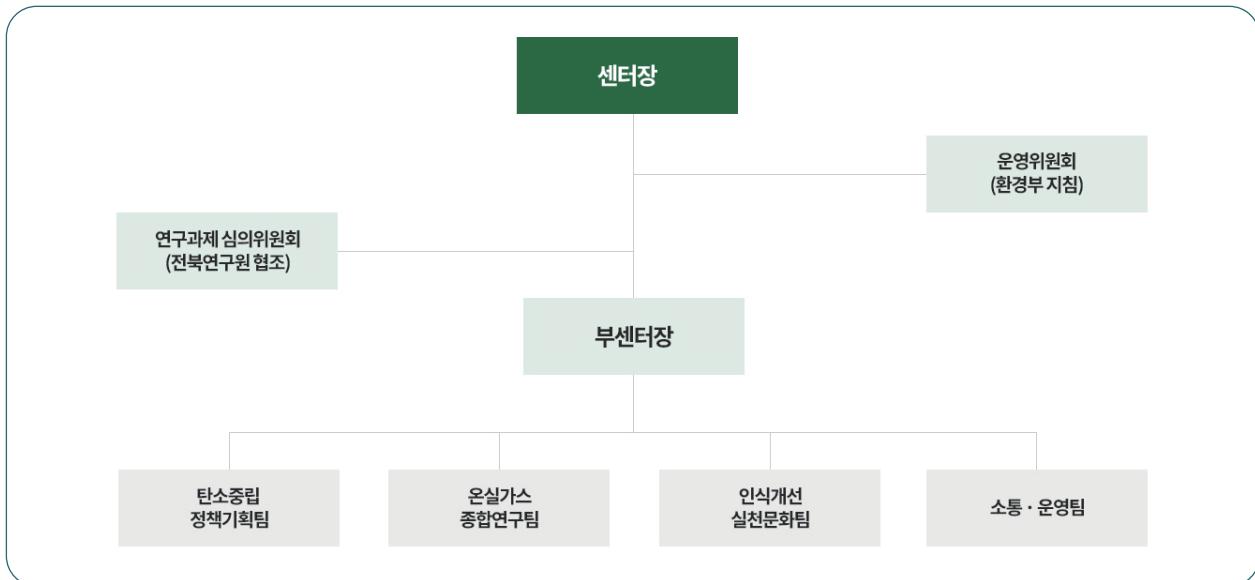
기후·생태·환경정책의 주류화,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 (개요)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설립됨
- (주요사업) 기후위기 정책계획 수립과 지역기반 전환모델 개발, 연구수행 및 통계작성, 탄소중립 인식증진과 참여협력, 교육 및 홍보, 시군 및 국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수립 및 이행평가 지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수립지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원 등

- 연구통계관리: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전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및 분석 등 관련 연구과제 수행
- 문화조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지원, 탄소중립 리빙랩 시범사업 추진
- 대내외 협력: 전북 탄소중립 포럼 운영, 민간협력사업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 특화사업: 목조건축 활성화 특화전략 추진, 탄소중립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전북형 탄소중립 모델개발 등
- (운영방법) 현재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인 (재)전북연구원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4팀 5명으로 구성됨
- (예산규모) 연간 예산은 4억원임

〈그림 8〉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조직 구성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bcnc.kr/main/?menu=47>)

4

환경분야 중간지원조직 개별 운영 한계와 농어촌부문 통합추진 사례

○ 전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생태관광 증진, 환경교육 등 민간부문과 밀접한 환경관련 정책사업들을 개별적인 기관에 분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음

- 개별적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지역 주도 환경 정책의 실천력을 강화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함

〈표 1〉 전북지역 기후환경분야 중간지원조직 현황

기관명	근거법령	설립시기 (지정시기)	운영 위탁기관	주요 추진사업	예산규모(연간) 예산지원 인력(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전북 무주군)	• 내무부 자연학습원 조성지침('80.12.16) • 전라북도 조례 제4589호(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제9조)	1986. 1.28.	(사)자연생태 환경연구소	• 주민참여 생물다양성 조사 •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 전북시민과학자 양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연수원 홍보/협력사업	739백만원 (도비) 13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 전주시)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0조	2000. 7.28.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J-SDGs 수립 및 시범지표 모니터링 •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 교육사업(동그라미점빵 공간 운영 및 공동체 교육) • 전북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기획 및 운영	1,124백만원 7명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운영)	2001. 9.1.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사업(지역환경 현안문제 해결 기초조사·연구) • 기업환경사업(오염예방, 배출오염물질 저감 상담 및 기술지원) • 환경전문 기술인력 양성, 산업체 인력 재교육 • 거버넌스 체계 구축	950백만원 (국·도·시·군 비·기타(국가직 접지원)) 7명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광역) (전북 전주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2012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부)	• 환경교육기반구축 및 확대 • 환경교육단체 역량강화 지원 • 환경교육 교구 대여 서비스 • 기초환경교육센터 컨설팅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168백만원 (국·도비) 3명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 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7조	2016	한국생태 관광협회	• 생태관광 기획·컨설팅 •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 전문인력 육성 • 홍보·마케팅	650백만원 (도비) 5명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7조	2022	(재)전북연구원	• 탄소중립 정책기반 구축 • 과학적·체계적 선도연구 수행 • 인식개선, 실천문화 확대 • 시군협력, 국내외 협력 • 성과확산	400백만원 (국·도비) 5명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2024)

기후·생태·환경정책의 주류화,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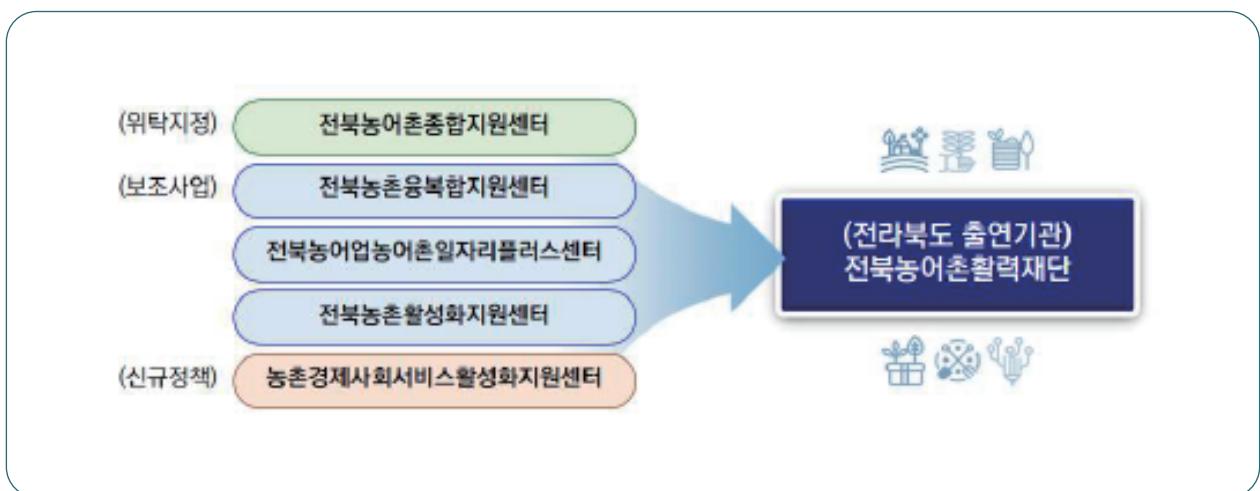
○ 새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전북 특화형 환경정책 추진에 부응하여 민간부문의 환경부문 실천과제 추진을 전담할 수 있는 통합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실정임

- (권역별 생태보전정책 추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권역별 자연환경보전센터 지정·운영,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권역별 생물다양성센터 지정·운영
- (지역 생물다양성 정보체계 구축·운영)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관리운영, 광역 차원의 생물다양성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 환경영향평가 전담센터 설립·운영) 전북특별법 및 조례에 따라 위임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할 센터 설립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 농어촌분야에서는 '25년 1월, 기존 5개 세부정책별로 분산 및 위탁 운영되던 센터들을 묶어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을 설립, 전문성 강화와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간 시너지 창출과 지역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융복합지원센터, 농어업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 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전문기관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을 설립
- 통합 재단설립·운영을 통해 농촌사회서비스 확대,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실현

〈그림 9〉 기존 센터를 통합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구조



전북특별자치도(202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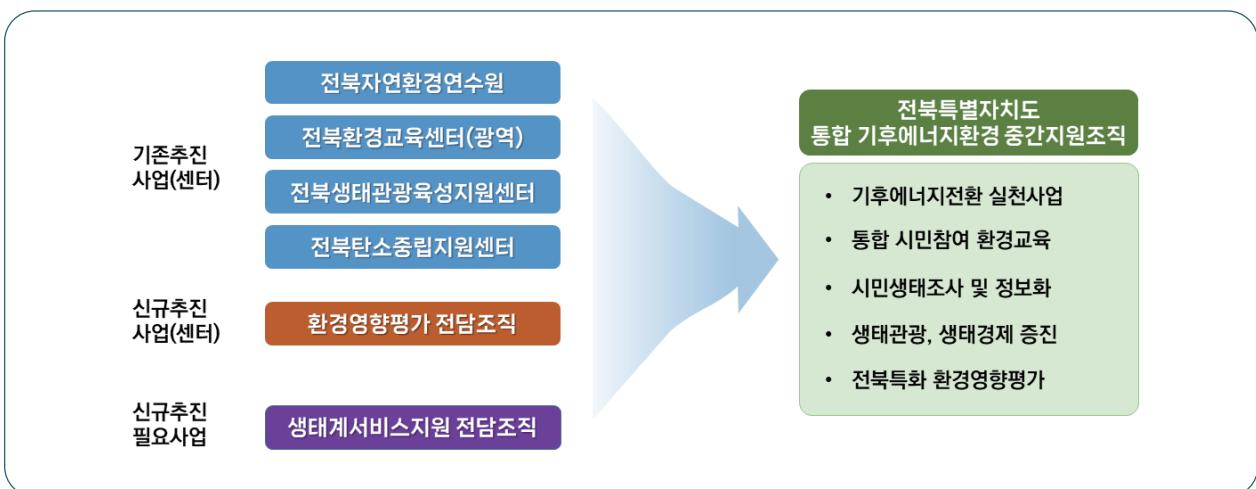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추진방향

-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환경 분야 중간지원조직 통합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
 - 증가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지역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주민참여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도지사는 지역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실천, 환경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및 인식증진,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정부 및 도 지원)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역 주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분야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적·재정적 지원

〈그림 10〉 전북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구조



- 각 기관들의 현재 재정지원 형태와 소재지, 관리부서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에서 설립

- 국가직접, 국·도·시군비, 국·도비, 도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재원, 전주, 익산, 무주 등 소재지간 분리된 공간을 통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재원 통합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고려하여 추진

- 1단계(기반조성)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 추진, 통합추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출범

- 2단계(통합추진)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에 환경영향 평가 전담조직 기능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분야 중간 지원조직의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시설·공간 통합 방안 논의 및 조례 개정

기후·생태·환경정책의 주류화,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

- 3단계(중간지원조직 설립)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사무실 개청, 전북 특화정책 개발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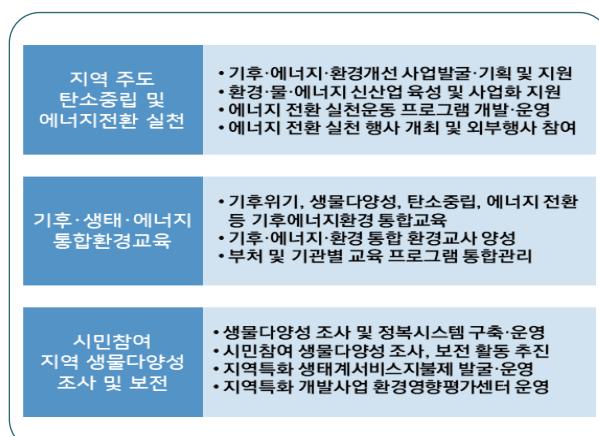
〈그림 11〉 단계별 추진전략



- ## ○ 전북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 부문 민간분야 실천과제 수행

- 통합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주도 기후행동 실천, 기후·생태·에너지 통합환경교육 추진, 지역 생물다양성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전북지역 특화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발굴·시행을 담당

〈그림 12〉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사업 내용



- 전북특별법을 통해 개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진흥원 조례 제정으로 업무 범위 명시 및 사업간 시너지 창출 기여

- (전북특별법 개정)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 조직 설립 근거 및 정부와 도의 지원사항 명시

-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조례)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의 도지사 설립 목적과 추진사업,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직원 임면, 운영재원, 실적 결산 및 감사 등으로 구성

-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기후대응기금 및 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원 확보

- (국가 기후대응기금) 새정부 출범에 따라 확대될 예정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을 지역특화 민간참여 기후환경정책 추진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원 활용 가능

- (전북 기후대응기금) 전북자치도 조례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김호석·임혜숙·김종호 (2018)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 지속가능발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환경재정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3) 전북 농어촌활력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202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전북특별자치도 (2025)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geea.or.kr/theme/ggeea/html/sub_1_3.php)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홈페이지(<http://jayeon.or.kr/>)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http://www.jbcisd.org/file/index.php>)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bgec.or.kr/bbs/content.php?co_id=sub01_03)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홈페이지(<http://jayeon.or.kr/>)

전라북도 생태관광 천리길·지질공원 홈페이지(<http://m.jb-ecotour.org/main>)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bcnc.kr/main/?menu=47>)

iSSUE BRIEFING

vol.331



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